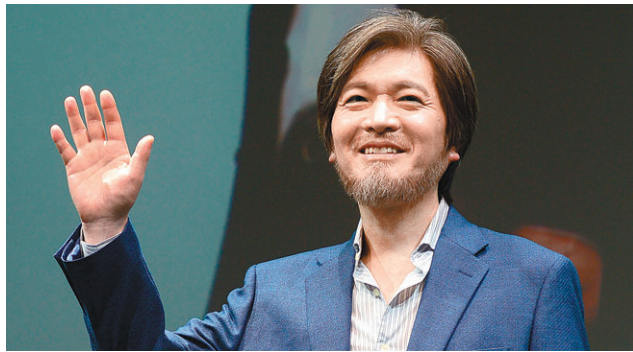




가수 임재범

아내와 아버지 떠나보내고 7년만에 돌아온 가수 임재범

정규 7집으로 컴백...타이틀 곡 '위로' "다시 일어나보려는 이들 위해 돌아왔다"

가수 임재범이 7년의 긴 공백 끝에 돌아왔다. 아버지와 아내를 떠나보낸 뒤 오래 잠행해온 끝에 "다시 일어나기"로 한 것이다.

2011년 MBC '나는 가수다'에 출연해 신드롭급 인기를 끌었던 임재범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블루스퀘어 카오스홀에서 정규 7집 '세븐 콰' (SEVEN.) 프롤로그 '위로'의 청음회를 열고 무대에 섰다.

임재범은 이날 "2016년 2월 마지막 공연 뒤 사랑하는 아내가 그해 6월 하늘나라로 떠나고 2020년 1월 아버지도 떠났다"면서 "마음도 많이 무거웠고,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임재범은 쏟아지는 인기와 밀려드는 방송 출연 요청, 콘서트 등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잠행을 택했다. 어디에서도 그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그동안 음악도 듣지 않고 TV조차도 보지 않았다"며 "그렇게 생활하다보니 음악과 너무 멀어지게 됐다. 그럼에도 가끔 팬들이 인터넷에 남긴 글들을 보면서 아직도 나를 기다려주시는구나 알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팬들의 글들을 봤고, 힘들었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보는 사람들에게 노래를 들려주면 어떻겠냐는 주위의 말을 들었다. 소속사도 다시 힘을 줬다"고 무대에 다시 돌아온 배경을 털어놓았다. '위로'는 그런 과정 끝에 선택한 노래다. "많은 이유로 볼 꺼진 방에서 혼자 힘들음 참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노래를 듣는 시간만이라도 곁에 있어 주고 싶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임재범은 정규 앨범을 소개하는 방식으로도 자신이 겪은 고통을 드러낸다. 소속사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초까지도 지금의 몸무게보다 15~20kg가량 빠진 상태였다. 또 머리카락도 허리에까지 닿았다. 그만큼 건강이 좋지 않은 채 앨범을 준비해왔다는 설명이다. '위로'를 시작으로 하반기까지 이번 앨범 수록곡을 순차적으로 완성해 공개하게 된 이유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우리들의 블루스'로 감동 전한 다운중후군 배우 정은혜

"혼자 전철 무서웠는데...이젠 따뜻한 시선 행복"

노회경 작가 시사회 참석 눈물 호흡 맞춘 지민 언니·우빈 오빠 '매일 잘한다, 예쁘다' 큰 힘 돼 제 영화 '니얼굴' 기대해주세요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사진도 찍어 달라, 사인도 해달라 해요. 하나도 귀찮지 않아요."

12일 막을 내린 tvN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를 통해 얼굴을 알린 정은혜(32) 캐리커처 작가는 몇 번이나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드라마 방영 이후 쏟아진 따뜻한 격려와 관심 덕분이다.

실제 다운중후군을 앓는 정 작가는 극중 한지민의 발달장애인 언니 역을 연기하며 장애인에 겪는 어려움을 본인의 경험으로 녹여내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또 자신의 작품을 드라마에서 선보이기도 했다. 제작진은 2013년부터 5000여 명의 얼굴을 그려온 캐리커처 작가인 그의 모습에서 캐릭터를 착안했다.

정 작가는 23일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니얼굴'에도 나선다. 연출자 서동일 감독, 만화작가인 장차현실 프로듀서와 함께 관객을 만난다. 두 사람은 정 작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아버지와 어머니이다.

● "한지민 언니·김우빈 오빠, 고마워요"

16일 서울 삼성동에서 만난 정은혜 작가는 드라마 출연 이후 "멋지다. 잘 한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따로 (연기)연습은 안 했다. 그냥 타고난 실력이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자 서동일 감독은 "내가 얼마나 대본을 읽어주고 연습을 도와줬는데. 그런 건 다 잊어버렸다 보다"며 웃었다.



캐리커처 작가 정은혜는 23일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니얼굴'을 통해 관객과 만난다. 다운중후군을 앓고 있는 그는 최근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도 전한 감동을 안겼다. 사진제공 | 영화사 진진

사실 드라마 대본을 쓴 노회경 작가와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출연까지 하게 될지는 상상하지 못했다. 극중 장애인 캐릭터를 위한 취재 인터뷰가 생각했다. 그런데 첫 만남에서 노 작가는 출연을 제의해왔다. 노 작가는 14일 '니얼굴' 시사회에도 참석해 정 작가와 쌓은 우정을 드러냈다. 이에 눈물을 쏟은 정 작가

는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다. 나를 예쁘게 봐주고 섭외도 해줬다"고 말했다.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호흡을 맞춘 한지민과 김우빈도 자신에게 늘 따뜻했다고 정 작가는 돌아봤다. "지민 언니랑 우빈 오빠가 지난해 11월 11일 생일 파티도 해줬다. 매일 잘 한다고 말

해줬다. 늘 예쁘다 귀엽다 해줬다"며 미소 지었다.

서 감독은 "토크스타인 두 사람이 현장에서 은혜를 살뜰히 돌봐주는 모습에 감동받았다. 두 사람 모두 첫 만남 때부터 은혜에게 먼저 전화번호를 물었다. 지금도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더라. 한지민은 은혜의 매니저를 자처하며 화장실 가는 것까지 함께 해줬고, 김우빈은 은혜가 추울까봐 늘 점퍼를 벗어줬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 "달라진 사람들 시선 느껴"

정은혜 작가는 드라마 방영 이후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달라진 태도를 느끼고 있다. "드라마 찍기 전에 혼자 전철 타고 다니면 막 만지거나 성희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럴 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았다. 지금은 사람들과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 다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준다"고 말했다. 이에 서 감독은 "은혜는 예전과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드라마로 사람들의 시선이나 인식이 바뀌는 걸 보며 문화예술이 가진 마법 같은 힘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니얼굴'을 통한 또 다른 변화를 기대한다는 서 감독은 "발달장애인이 등장하는 영화는 늘 어둡고 불편한 이야기를 다룬다. 하지만 난 밝은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발달장애인이 아닌 매력 있는 한 명의 아티스트를 소개하고 싶었다"고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정 작가도 '니얼굴'을 통해 새롭게 만나게 될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영화를 봐주셨으면 좋겠다. 영화를 보러 와주신 팬들과 사진도 많이 찍고 추억도 만들고 싶다"며 웃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동성연애 예능' 콘텐츠 7월 잇따라 공개

'메리 쿼어' 성소수자 커플 일상 담아 '남의 연애' 남성 동성애자 사랑 찾기

이번에는 '동성연애 예능' 콘텐츠이다.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웨이브가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리얼리티 예능 콘텐츠 '메리 쿼어'와 '남의 연애'를 7월

연이어 선보인다. 연애 소재를 내세운 콘텐츠가 방송가를 주도해왔지만, 성소수자의 연애 등 성 다양성에 기반한 예능 포맷은 처음이다.

16일 웨이브에 따르면 '메리 쿼어'는 현재 교제 중인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커플들의 일상을 그리는 관찰 예능 형식이다. 이들

의 일상과 연애 과정을 통해 사회적 편견에 맞서 사랑을 키워가는 성소수자들의 고충도 들여다본다.

'남의 연애'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한 집에 모여 합숙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는다. 앞서 넷플릭스 '솔로지옥', 채널 A '하트시그널' 시리즈 등이 선보인 연애 리얼리티 소재를 동성애에 접목한 셈이다.

다양한 쿼어 콘텐츠가 시청 거리를 좁히고 있는 최근의 흐름을 반영한 시도로 보인다. 2월 BL(Boy's Love·남성 동성애 코드

의 로맨스물) 드라마인 왓차 오리지널 시리즈 '시맨틱 에러'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마블스튜디오 신작 '미즈마블' 등에도 성소수자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나섰다.

웨이브 관계자는 "이미 방송가에서는 쿼어 콘텐츠가 다양한 문화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메리 쿼어'와 '남의 연애'를 통해 신선하고 파격적인 재미와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볼 만한 사회적 메시지도 던지겠다"고 강조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0-03815호(2020.12.24) (COM-2020-08-32243)

“암보험 하나 있는데 뇌출혈도 걱정되고”

뇌출혈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
2018건강보험통계연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

“암 치료비는 나오지만 생활비가 부족하고”

암 진단 후 실직 또는 휴직 46.8%
2013 국립암센터(국가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생명원인 2위 질병은 대비조치 안했고”

대한민국 사망원인 2위 심장질환
2017 사망원인통계, 통계청(2018)

내 보험! 보장빈틈 걱정없이!

꼭 필요한 보장이 없어서는 곤란하지요? 걱정! 이제 걱정 마세요!
큰 병의 진단비도, 특약으로 생활비까지도 걱정없이!
원하는 보장만 골라 보험 빈틈을 꼭꼭 채워드립니다!

가입고객 전원, <AIA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 상세 내용 별도 안내장 참고

무매당 백세시대 (갱신형) 꼭 하나 건강보험

노출혈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암생환비 (특약)**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암에 걸린 적이 있어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나이가 많아도 (40 ~ 75세)** **자병이 있어도** **수술 병력이 있어도**

건강보험 꼭 하나 들어야 한다면 전화주세요

080-860-6700

이츠2in1 와이드그릴 상담원서, 무료증정!

• 접수 후 7일 이내, 최소 50만 이상 상담 시(개인정보 제외)
• 배송은 상담원료 후 약 6주 소요(1회 한정)
• 암사망환자 가족 후원금(최소 500만원) 지급
• 본 상품은 소비자가 기존 건강보험을 추가하지 않음
• 다른 상품으로 대체 발송될 수 있음

AIA생명보험 주식회사